

기부 생태계(기부문화 지식 생태계 포함)의  
활성화와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5개 시기별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의 변화는 단순히 연구소만이 아니라  
기부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박훈 소장



## 03.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생태계 메타포(metaphor)

## 조직 및 사업 소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04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기부문화<sup>1)</sup> 전문 연구소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고 기부와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글로벌 연구 파트너로 참여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학습하는 동시에 한국의 현황과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워크숍 및 콘퍼런스를 통해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부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및 제도를 연구해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기부문화연구소의 대표적 연구 사업은 '기빙코리아' 사업이다. 2001년 시작된 기빙코리아는 기부 행동과 인식을 조사하는 한국의 대표적 기부 지수로, 2015년까지는 '개인기부조사'와 '기업기부조사'를, 2016년 개편 이후에는 '비영리기관조사'와 '개인기부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기빙코리아는 기부 참여율, 평균 기부 금액, 기부처, 기부 방법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 기부 지수

<sup>1)</sup> 기부문화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영어로는 '필란트로피(Philanthropy)'다. 기부 행위(donation)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 20th Giving Korea

2000년, 국내 최초로 한국의 기부지수를 개발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측정 대상 및 범위와  
선정 이유

를 산출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국가 통계인 통계청의 '사회조사(Social Survey)'에 기부 문항이 추가되는 데 기여했으며,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분석 결과와 원데이터를 공개하고 발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연구소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기획연구'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비영리기관의 모금 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기획,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고액 및 자산 기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부 연구 시리즈'와 법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변화를 견인해왔다. 그 외에도 비영리 투명성 강화, 법제도 현실화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비영리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눔복스는 아름다운재단이 발간하는 기부문화 총서 브랜드다. 아름다운재단 나눔복스는 재외 사업가로 선진국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기부자의 뜻에 따라 2001년에 시작되었다. 기부문화에 대한 도서를 꾸준히 펴내고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비영리 부문 종사자와 기부자에게 기부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파, 국내 비영리 부문의 역량 강화와 기부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 연구 한국 대표 파트너로서 아시아 공익활동환경 평가지수(Doing Good Index), 글로벌 필란트로피 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등을 생산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석·박사 연구 지원, 비영리 부문 및 기부 연구 그룹의 멤버 활동 등 기부 분야 연구자 양성과 국제 네트워크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단인 만큼 모금과 배분도 중요하지만, 비영리 섹터의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사업뿐 아니라 작은 비영리단체 지원, 인건비 지원, 비영리 활동가 개인의 휴식을 위한 지원 등 비영리 섹터의 건강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또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단일 재단으로서 사업 확장보다는 재단이 속한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익 사업에 대한 연구, 기부문화 실태를 진단하는 각종 기초 조사 연구, 기부 관련 법제도 연구, 선진 기부 국가의 기부문화와 정책에 대한 탐색 연구 등 기부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디어와 근거를 제공하는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재단에 설치했다. 기부문화연구소가 시작된 배경이다.

연구소는 한국 기부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비영리기관 섹터 확장 연구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으며 모금 아카데미 등 교육 사업,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는 여러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외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 설계 도면 그리기가 아닌 스케치부터

Learning Community에 참여한 이유는 비영리 섹터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측정 기술을 접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초 연구와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비영리 섹터의 성장과 기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연구소 내에서 성과 측정과 관련한 국내외 여러 아티클을 읽어왔지만, 연구 실적 너머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연구라는 활동의 특성상 그 대상이 개인이나 조직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업, 다른 정책, 다른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지적 자원이다. 연구소는 연구라는 방식으로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간접적 역할을 해왔다. Learning Community 초반에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이번 파일럿 측정에서는 개별 연구 또는 연구 사업의 성과가 아닌 기부문화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생태계 임팩트를 다루기로 했다. 마침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조직의 생태계 임팩트를 다루는 것은 연구소뿐 아니라 Learning Community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실험적으로 임팩트를 그려보자는 Learning Community의 취지에 기대어 학문적 엄밀함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기로 했다. 우리는 보다 즐겁게 상상하며 설계 도면 그리기가 아닌, 풍경화를 스케치하듯 임팩트를 그리기 시작했다.



### 임팩트 접근을 위한 고민 과정

연구소가 연구 실적(output)이 아니라 기부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다. '연구소의 활동으로 우리나라 기부액이 늘어났는가?', '연구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가 유입되었는가?', '연구소의 연구로 좋은 기부 정책과 모금 전략이 개발되었는가?', '연구소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양적·질적 성장이 일어나는가?' 이는 논리 모형<sup>2)</sup>에 충실한 좋은 질문들이다.

연구소의 등장 이후 연구소의 활동 실적과 기부 사회 주요 요소의 변화 추이를 더듬어보면, 일견 관련성이 보일 법도 했다. 그러나 '기부'라는 생태계는 아름다운재단이나 기부문화연구소의 활동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기부 생태계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 좋은 질문이지만, 답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 생태계 은유, 통섭적 접근

우리는 연구소의 임팩트 측정을 논의하기 전, 연구소가 기부 생태계에서 어떠한 의미와 역할, 포지션을 갖는지 설명하는 작업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그동안 '기부 생태계에 기여한다', '기부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표현을 써왔다. 산업이나 사회 그룹을 설명할 때 흔히 생태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많은 조직이 'OO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정작 자연 생태계가 아닌 인간 사회의 생태계를 정의하고, 무엇을 '생태계 활성화'라고 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재단이 속한 '기부 생태계'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생태계라는 말은 특정 자연과 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지만, 그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개념부터 들여다보았다. 자연 생태계는 대기, 물, 토양 등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물질 순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각각 분리해서는 전체로서, 기능 및 구성요소로서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기환경과 생물을 묶어 하나의 총체적 체계(system)로 파악하는데, 이를 생태계(ecosystem)라고 한다. 생태계의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기후가 조절되고, 오염 물질이 흡수·분해·동화되며,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과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 자연은 이렇듯 공익적 기능 외에도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거칠어지기 쉬운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는 숨은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을 기부 생태계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은유(metaphor)적 방식은 과학 이론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과학 이론에 대한 '구성적 은유(constitutive metaphor)'는 개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실재를 쉽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과학이 인문학적 개념을 은유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문학이 과학적 개념을 은유하기도 한다. 생물학

2) 논리 모형(logic model), 프로그램의 작동에 대한 논리적 연관으로 구성된 모델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input)—일차적인 활동(activities)—활동의 산출물(output)—활동을 통한 변화(outcome)—변화로 인해 파급되는 영향(impact)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 인과적 가정을 식별해주는 기능을 한다. 프로그램의 '성과가 있다'는 것은 활동을 통한 변화(outcome)와 영향(impact)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 이론을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은유하는 접근은 수많은 연구에서 적용된 바 있다. 기부 생태계 개념을 생물학의 생태계 개념에 빗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 협력 역량 기부 생태계는 금전이나 현물, 기술과 재능 등 유·무형 자원과 기부자, 수혜자, 모금 및 배분 기관, 조정 및 감시 기관 등의 행위자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자원을 순환한다. 수혜자에 대한 설명 없이 기부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어렵듯, 모든 행위자와 이들 사이에서 배분되거나 순환하는 자원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총체적 집합을 기부 생태계로 정의할 수 있다. 기부 생태계의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정부와 시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원과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기부는 이러한 기능 외에도 작게는 사회 미담을 생성하는 것부터 사회 전반에 협동과 공감에 기반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부 생태계의 활성화 또는 기부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부문화연구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부 규모만 14조 원이 넘는 국내 기부 생태계에서 단일 연구소가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가능해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접근보다 연구소가 기부 문화 지식 생태계,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생태계 서비스 이론을 기반으로 비유(analogy)해 구조화하고자 했다.

### 임팩트 프레임과 측정 방법

자연 생태계는 생산자·소비자·분해자 등 행위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행위를 통해 물질이 순환한다. 기부 생태계에도 기부자, 수혜자, 배분 기관, 연구 기관, 정책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한다. 또한 생태계는 상·하위 생태계로 다층적 구조를 띤다. 자연 생태계의 하위 구조로 해양 생태계, 산림 생태계 등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기부 생태계도 여러 하위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 생태계, 수혜자 생태계로 구분하거나 개인 기부 생태계, 법인 기부 생태계 등 관점에 따라 여러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기부 생태계의 하위 생태계로서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를 가정하고,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에 속한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 사회에 속한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임팩트로 정의하기로 했다.

#### 앵커 스토리: 생태계 서비스 이론과 생태계 건강성 이론

2006년 UN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에 따르면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에서 얻은 이득이나 혜택을 의미한다. MA는 공급, 지원, 조절 및 문화의 네 가지 범주

로 생태계 서비스를 설명한다. 생태계가 반드시 네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태계의 복잡한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서비스의 조합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숲, 바다, 산호초, 맹그로브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성격과 결과가 다르다.

| 그림 1 | 생태계 서비스 범주와 내용



- ① 공급(provisioning) 생태계가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서비스. 임산물, 해산물, 물, 원자재 등을 제공하는 것
- ② 조절(regulating) 생태계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습지를 통한 오염물 여과, 탄소 저장과 물 순환을 통한 기후 조절, 재해로부터 보호 등 생태계 기능에 의한 환경 조절
- ③ 문화(cultural) 생태계가 인간의 유희, 미적 효과, 인지 및 영적 활동에 혜택을 주는 것. 자연이 주는 영감, 휴식과 치유, 심미적 가치 등
- ④ 지원(supporting) 다른 생태계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영양 순환, 토양 형성, 물질 순환, 서식지 제공 등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

생태계 서비스 이론은 연구소와 연구소가 속한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가 우리나라 기부 생태계에 어떤(what)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그 영향이 생태계에 어떻게(how),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구조도 필요했다.

**출처**  
 lansiti, M. and R. Levien(2002), Keystones and Dominators-Framing the operational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 Working Paper: 라준영, 김수진(2012), 사회적 기업 생태계 연구, SK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

임팩트는 통상 그 영향이 큰지 작은지, 영향이 미치는 폭이 넓은지 좁은지를 보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생태계에 대한 임팩트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태계는 규모뿐 아니라 그 기능이 잘 작동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나무가 1000그루 자라는 곳보다 수십 종의 나무가 500그루 자라고, 그 밖에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 더욱 숲 생태계에 가깝다.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평가는 크기가 아니라 '생태계가 건강한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를 생산성, 강건성, 다양한 창조성(niche creation)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정리한 이론이 '생태계 건강성(The Health of Ecosystem)'이다.

생산성 productivity	강건성 robustness	다양한 창조성 niche creation
생태계가 투입 자원을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효과성	생태계가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대응하려 복원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능력	생태계가 의미 있는 다양성을 창출하고,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능력

기부문화연구소의 임팩트 프레임에 생태계 이론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생태계 층위를 설정한다. 하위 생태계인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 상위 생태계인 기부 생태계다. 우리는 학습한 생태계 이론에 비춰 이 두 가지 층위의 생태계에 대해 연구소가 만든 임팩트를 가능해보고자 했다. 1) 생태계 건강성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 내에서 해온 역할을 가시적으로 그려본다. 2)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기부 생태계가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 생태계의 핵심종<sup>3)</sup>으로서 지식 자원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소의 연구 실적과 사업 성과를 재해석해보기로 했다.

| 그림 2 | 생태계 이론을 접목한 임팩트 프레임



3) 핵심종(核心種, Keystone species)은 비교적 개체수가 적으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물종(種)을 말한다. 이러한 종들은 생물계 내에서 다른 많은 종의 종류와 개체수를 결정한다. 식물을 멸종시킬 위험이 있는 초식동물을 초식하는 소형육식동물, 하천이나 늪에 집을 댄으로 지어 생태 환경을 바꾸는 비버, 식물의 종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철새들이 그 예다.

임팩트 측정 결과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의 변화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핵심종 역할

Learning Community에서는 우선 시야를 좁혀 기부문화와 관련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등 지식 자원을 기부 생태계에 제공하는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를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부 사회에 연구소가 미친 임팩트는 연구소가 속한 하위 생태계의 건강성으로 설명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온갖 기관, 사업, 연구자의 이름을 무작위로 나열했다. 그것들을 늘어놓고 차근차근 생태계를 설명하는 구조와 방식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Learning Community의 연구소 측 참여 구성원의 강점이 빛을 발했다. Learning Community에는 기부문화연구소 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아름다운재단 사무국 직원이 대표로 참여했는데, 이들이 문화 지식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변화의 흐름을 짚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Learning Community 내에서 토론하기도 했지만, 연구소 내부에서 여러 차례 내부 구성원과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기부문화연구소와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 간 관계 구조를 그려냈다.

기부문화연구소와 지식 생태계 간 구조도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우선 전체 생태계 구조도의 구역을 비영리 섹터와 영리 및 공공 기관 섹터로 나누었다. 생태계 내 행위자는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목적과 정체성이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와 거의 일치하는 기관(기관 행위자)과 다른 주목적이 있으나 일부 지식 생태계에 기여하는 기관(일부 기능적 기관 행위자), 그리고 새로이 진입하는 기관 행위자로 구분했다. 개인 행위자는 해당 시점에 활동하던 개인 연구자와 새로 진입한 연구자로 구분해 표시했다.

다음으로는 기부문화연구소와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의 행위자 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네트워크 협업** : 행위자 간 자원을 공유해 동일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 멤버십** : 특정 행위자가 타 행위자의 구성원으로 속하는 것
- 모델 확산** : 특정 행위자의 사업 모델이 타 행위자의 사업으로 벤치마킹되어 복제, 확장되는 것
- 인적(역량) 이동** : 행위자 간 연구진의 이동 또는 연구진의 연구 역량이 교류, 공유되는 것



이러한 구조로 연구소가 설립되기 직전부터 현재까지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그려보니 모두 5개의 시기로 나눠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의 미분화: ~2000년 기부문화연구소 창립 전

2000년 초까지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에는 소수의 행위자만 존재했다. 특히 기부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비영리 섹터 연구의 한 맥락으로 진행되었기에 행위자들도 비영리 섹터 쪽에서 먼저 등장했다. 전문적으로 기부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은 없었고, 기존 비영리단체·자선단체·시민사회 조직 중 일부가 기부와 관련한 의견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당시 생태계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분화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지식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자의 등장:

2000~2005년 기부문화연구소 창립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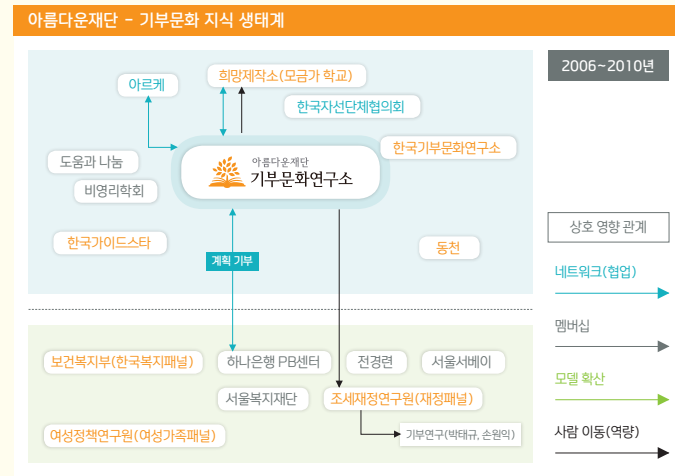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시기, 마침내 비영리 분야의 지식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행위자 또는 주사업은 아니더라도 기관 기능의 일환으로 기부와 관련해 지식 생산을 하는 행위자들이 등장했다. 연구소는 본격적으로 기부문화와 관련한 연구물이나 저작물을 비영리 섹터 전문 출판사인 아르케와 손잡고 총서 형태로 발간했다. 이 시기에는 비영리 섹터 바깥에서도 지식 생태계 행위자들이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인데,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부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리 섹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연구소는 타 분야의 연구자들이 기부문화 연구와 연계해 새로운 연구진이 생태계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왔다. 비영리학회 학자들과 연구소 연구원들이 상대 기관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비영리·기부 분야 연구가 결합될 수 있는 인적 교류를 시작했다.



3) 지식 생산 본격화: 2006~2010년

2006년부터는 지식 생태계 행위자들의 지식 생산이 본격화되었다. 또 하나의 기부문화 전문 연구 기관 '한국기부문화연구소'가 등장하고, 민간 최초로 비영리 정보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NPO 정보 공시 및 검색 환경을 구현하는 '한국가이드스타' 등 기부문화 분야에 체계적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기관이 생겨났다. 또한 비영리 섹터와 기부 영역의 법률을 연구·지원하는 공익법재단 '동천'도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기부문화연구소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모금가 학교를 열어 기부문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시작했다. 계획 기부 연구를 기반으로 하나은행 PB센터와 사업 협력도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기부 분야에 대한 정부 섹터의 관심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조세재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패널 조사에 기부와 관련한 항목을 반영하거나 연구물을 내놓기도 했다. 각 부처의 필요에 맞는 기부 부문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조세재정연구원의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사업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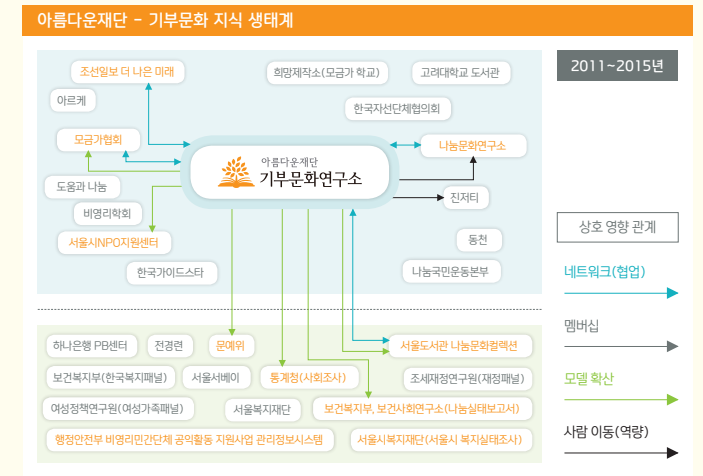
4) 지식의 확산과 복제: 2011~2015년,

기부문화연구소의 새로운 파트너 발굴과 육성

2010년부터는 생태계 내에서 복제와 확산이 활발해졌다.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언론 등에서 기업 사회 공헌, 비영리 섹터와 공익 활동, 기부 문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만들어졌다. 지식 생산이 지식 유통으로 이어지며, 기부문화가 개인 기부자나 기업, 배분기관을 넘어 사회 보편적 이야기로 스며들었다. 나눔문화연구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등 전문적 비영리 및 기부 관련 연구 조직도 늘어났다. 기부 생태계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교육과 실천으로 옮기는 한국모금가협회가 설립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름다운재단 내부에 설치된 '기부문화도서관'을 서울도서관과 협약으로 '나눔문화컬렉션'으로 확대 설치한 이후 고려대학교 도서관,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의 공간 '지리산 들썩' 등으로 관련 서적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가 공간적으로만 들어지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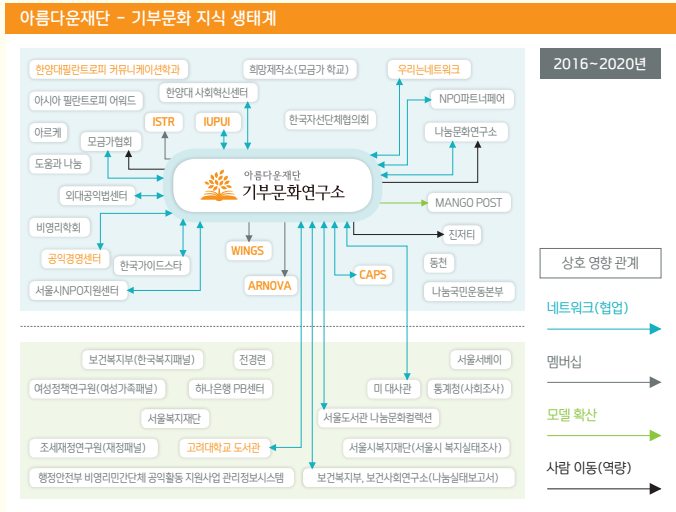
기부문화연구소는 이 시기에 새롭게 출현한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아예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생태계 행위자로 육성을 독려하는 등 복제, 확산에 집중했다.

더 많은 정부 기관이 기부문화 지식과 데이터에 관심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보건복지부는 '나눔실태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기부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기빙코리아' 조사 항목은 통계청 사회 조사에 반영되어 기부 조사가 국가 통계로 생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5) 복잡해진 생태계와 해외 네트워크 확장: 2016~2020년

최근에는 대학에 필란트로피와 사회 혁신 등과 관련한 학과나 전공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부문화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기부문화연구소는 해외에 있는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국제 연구 협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릴리패밀리 필란트로피학과(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와 글로벌 필란트로피 환경 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를, 홍콩의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Center, CAPS)와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의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비영리와 자원 활동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ARNOVA(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ISTR(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비영리와 지원 국제 이니셔티브(Worldwide Initiatives for Grantmaker Support, WINGS)에 멤버십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등과 '나눔지식네트워크'를 꾸려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의 변화와 그 안에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활동과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번 파일럿 측정에서는 진행하지 못했으나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생태계 건강성 기여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작업이 임팩트 측정이 될 것이다.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가 기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부문화연구소의 핵심 역할은 결국 기부 생태계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의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연구소는 연구 사업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과 축적된 데이터, 정책적 함의 등을 지적 자원으로 생태계에 공급, 기부 생태계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부문화연구소가 지난 20년간 연구 해온 내용을 토대로 기부 생태계의 공급, 조절, 문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 발간물 및 생성 자료를 주제별로 카테고리이 정한 후 생태계 서비스와 연결해보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물적 자원, 비물질적 자원, 인적자원을 기부 생태계가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주로 '기부 참여 행동', '기부 시장 조성'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로 분류했고 가장 많은 연구 실적으로 나타났다. 기부 생태계 자체가 미약한 초기 상황에 자원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연구를 통해 기여한 것이다. 최근에는 기부 생태계가 제공한 자원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투명하게 순환하도록 하는 조절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연대와 협력 정신, 건강한 기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도 있다. 또 기부 통계나 콘텐츠, 마케팅 등 기부 생태계를 기반으로

그림 3 | 생태계 건강성과 기부문화연구소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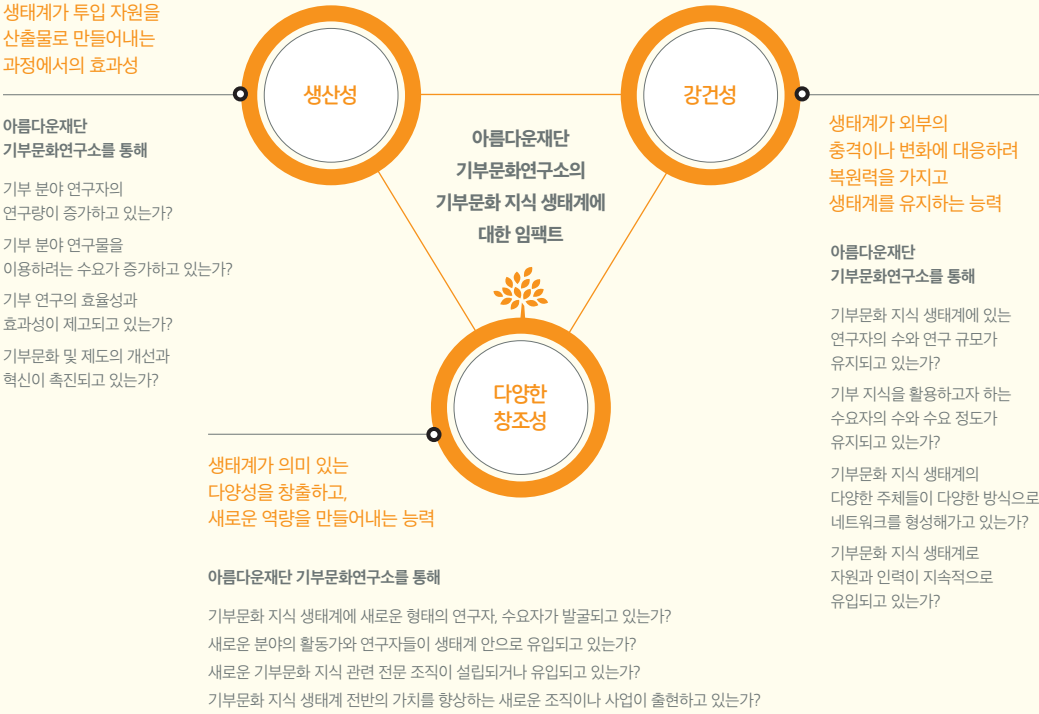


그림 4 | 생태계 서비스 이론에 따른 연구 실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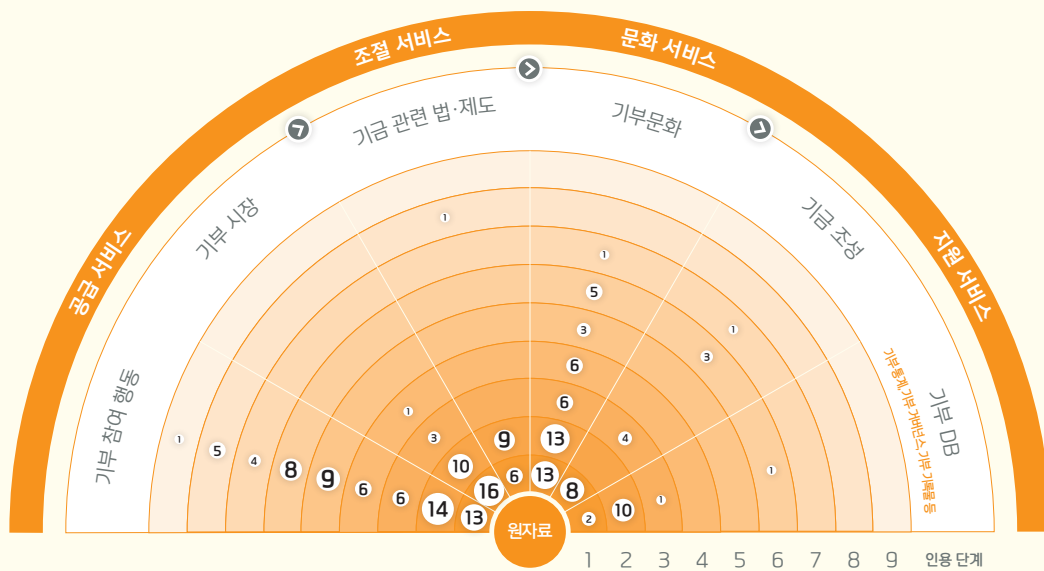
다른 연구 생태계나 사업 생태계가 더불어 성장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기부문화연구소 생성 자료가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물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선행 연구가 되어 후속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기부문화연구소가 제공하는 기빙코리아 등의 주요 통계 DB는 기부 관련 연구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연구소의 생성 자료가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빙코리아, 기부문화 총서 등 기부문화연구소가 생산하는 DB와 발간 자료를 직접 분석한 연구나 이를 인용한 연구 논문과 이 논문을 활용한 재인용 현황을 추적해보았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자료 검색 DB를 이용해 진행했다.

연구소가 생성하고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림과 같이 기부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공급, 조정, 문화, 지원 네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루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논문에 대한 인용의 인용을 거듭하며, 다양한 연구자들이 재단 연구 자료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5 | 생태계 서비스 이론에 따른 인용 실적 분류**



**임팩트 측정이 가져온 임팩트**

비영리가 추구하는 것이 곧 임팩트인데, 과연 그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때가 있었다. 뚜렷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기에 때때로 연구소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이 이른바 ‘잡질’은 아닐까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다. 20년간 작업을 정리하고, 그 결과물이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Learning Community를 통해 그동안 열심히 실적을 관리하고 기록해온 노력이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문화연구소가 수행해온 역할을 설명하는 임팩트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Learning Community 참여의 가장 큰 결실이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것이 기부를 다룬 보고서 한 권, 아티클 한 편의 의미를 넘어 기부 생태계를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될 것이다.

Learning Community를 통해 기부문화연구소의 과거 20년을 돌아볼 뿐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려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른 재단과 함께 배우고, 실험하고, 성장하는 기쁨이야말로 임팩트 파운데이션의 의미가 아닐까.

짧은 파일럿 기간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아쉽게도 이번 파일럿 측정에서는 일부 성과만 시범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쳤다. 언급한 기관이나 상황이 우리의 기록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전혀 다른 분석과 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연구소의 사업과 결과를 정리하는 틀을 생태계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 연구소뿐 아니라 재단 사업도 이 임팩트 프레임에 적용해보는 것, 우리나라 기부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부문화 지식 생태계가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 나아가 기부 생태계와 비영리 섹터의 진화 과정을 설명해보는 것까지. 더 많은 상상력을 모을 수 있도록 생태계의 다른 주체와도 협력해나가고자 한다.